

‘바로크의 숨결로 자연을 노래하다’

전주 문화공간이름, 비르투오조 시리즈 ‘더뉴바로크컴퍼니의 자연과 춤을’ 14일 공연

오는 14일 오후 5시, 전주 문화공간이름에서 2025년 비르투오조 시리즈의 화려한 막을 여는 첫 번째 공연, ‘더뉴바로크컴퍼니의 자연과 춤을’이 열린다. 이번 무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너머의 예술-이름’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자, 전통의 깊이와 감각적인 해석이 어우러지는 고전 음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특별한 시간이다.

‘더뉴바로크컴퍼니’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고음악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원전 악기 앙상블이다.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바로크 시대의 전통 악기와 연주법을 기반으로, 자연과 무용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원전 그대로 재현하며 17~18세기 유럽의 정취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무대는 프랑수아 쿠프랭의 클라브송 곡집 중 ‘숲의 정령들(Les sylvains)’과 ‘목가(La Pastorelle)’로 시작된다. 이어 ‘궁정의 공세르(Concert royaux)’ 제2번에서는 당시 귀족 사회의 우아한 음악적 감수성을 엿볼 수 있다. 엘리자베스 자케 드 라 게르의 소나타, 장 페리엘의 ‘춤곡의 성격들(Les caracteres de la danse)’은 각각의 춤곡이 지닌 고유한 정서와 리듬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장 필리프 라모의 오페라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중 발레곡은 꽃과 바람, 계절이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정서를 음악으로 그려낸다.

이번 무대에는 트라베르소 연주자 지복현,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최현정, 하프시코드 최현영이 함께한다. 유럽 우수 음악원에서 수학하고 국제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들 연주자들은 고공스러운 음색과 정교한 해석력으로 관객을 바로크 음악의 본질로 안내한다.



더뉴바로크컴퍼니의 자연과 춤을 포스터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고악기 중에서도 관객들이 실물로 접하기 어려운 첼발로(하프시코드)를 직접 무대에 들여와, 그 섬세하고 매혹적인 음향을 눈앞에서 경험할 수 있다. 피아노 이진의 건반악기인 첼발로는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담은 악기이지만, 국내 공연에서는 접하기 드문 만큼, 악기 자체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음악 여행이 될 것이다. 관객은 귀로는 음향을, 눈으로는 시대를 느껴며 그 시대 악기의 구조와 질감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과 춤을’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감각의 산책이자, 고음악을 눈과 귀로 동시에 체험하

는 오감의 무대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바로크 시대의 악기, 선율, 해석이 모두 어우러지며, 관객들은 공연장을 나설 때 음악뿐 아니라 하나의 예술적 기억을 갖고 돌아가게 된다.

문화공간이름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중앙 단위의 공공 예술 지원사업에서 기획력과 예술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는 지역 공연장으로서의 드물게 획득한 성과로, 이번 ‘너머의 예술-이름’ 프로젝트는 이러한 성과의 실질적 출발점이기도 하다.

‘너머의 예술-이름’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연 시리즈를 넘어 장르 간 융복합, 고악기 기반의 정통 해석,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 등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공연장과 예술가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 시리즈는 ‘서을 못지않은 예술 경험을 전주에서’라는 기조 아래, 지역 문화의 중심축으로서 문화공간이름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기획이다.

한편, 2025년 비르투오조 시리즈는 이번 ‘자연과 춤을’을 시작으로 피아니스트 조재혁, 피아노 듀오 신박듀오, 트리오 오브, 고상지밴드, 소프라노 서선영 등 국내외 최정상 연주자들이 무대를 이어간다. 각기 다른 주제와 음악 세계로 구성된 시리즈는 매 공연마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자연과 춤을’은 그 문을 여는 첫 공연으로, 고전의 깊이와 예술의 생동감을 전하는 상징적인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 예매는 네이버에서 ‘비르투오조시리즈’를 검색하거나 전화(063-223-53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위대한 태권도’ 공연 연이어 펼쳐진다

태권도진흥재단, 산골영화제·반딧불축제 등 무주서 20회 공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태권도 시범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5 위대한 태권도’ 사업을 추진하며 무주군에서 20회의 시범공연을 펼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올해 청와대와 인천국제공항, 천안 독립기념관 등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위대한 태권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축제 성공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무주 산골영화제’와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무주 반딧불축제’ 기간 중 수준 높은 태권도 공연을 진행한다.

먼저, ‘무주 산골영화제’ 기간인 6일 오후 5시와 7시, 7일 오후 7시 등 세 차례의 공연을 한풍루와 태권도원에서 진행한다. 또한, 반딧불 축제 기간에는 등나무 운동장에서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치고 이외에도 6월 ‘무주국가유신아행’ 등에서도 태권도 시범공연을 지원한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자연특별 시 무주군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 등에서 태권도 시범 공연을 펼치며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우리 국민들과 해외에서 찾은 관광객들에게 태권도 문화를 전하고 태권도 시범공연이 명품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찾아가는 문화예술장터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4월 재단에 따르면 5월 오전 9시 전주 초촌동, 12일 오후 2시 전주 우이2동, 25일 오후 2시 임실 오수면 등 3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문화예술장터(이하 장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및 접근성이 낮아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운영하는 현장형 서비스다.

장터에서는 △미술·공예품, △패션용품, △체육용품 등 문화누리카드 파트너 가맹점이 준비한 다양한 품목을 직접 확인하고, 즉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8만 원 이상 사용하거나, 연간 지원금 전액인 14만 원을 모두 사용할 경우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장터가 문화소외계



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해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동해안 성주굿·진도씻김굿과 함께 하는 ‘전통예능의 품격’

국립무형유산원, 13~14일 공연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관용)은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과 14일 오후 4시에 열쑤마루 대공연장에서 「해설과 함께하는 ‘전통예능의 품격’」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동해안의 성주굿과 진도씻김굿을 중심으로 굿이 지닌 공동체적 연대와 차이의 전통을 오늘날의 감성으로 되살리고자 기획됐다. 특히 동해안별신굿 김영희 명예보유자와 진도씻김굿 박병일 보유자를 비롯해 각 굿의 전승교육사와 이수자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로, 전통예능의 깊이와 품격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공연의 첫 번째 무대인 ‘동해안별신굿’에서는 가정과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성주굿을 선보인다. 성주굿은 집과 터를 수호하는 성주신에게 노래와 춤으로 축원을 올리는 굿으로, 신령 나는 가락과 몸짓으로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며, 관객과 호흡하는 활기찬 장면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무대는 ‘진도씻김굿’으로,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산 자의 한을 풀어주는 정화 의례이다. 이별의 슬픔을 춤과 음악으로 승화시켜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한다. 고풀이와 씻김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절제된 춤사위, 즉흥적인 무가와 연주가 어우러져 삶과 죽음을 잇는 굿의 깊은 정서와 울림을 전하고자 한다.

마지막 무대인 ‘대동’에서는 동해안과 진도의 굿이 하나가 되면서 공연의 절정을 이룬다. 이 무대에서 굿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신과 인간, 망자와 산 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 있는 축제가 된다. 무녀의 춤과 관객의 호응, 장단이 어우러지며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굿판 속에서, 삶을 위로받고 희망을 나누면서 막을 내린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예약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어린이 마당놀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서 개최

어린이 마당놀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가 오는 7일과 8일 오전 11시 한국전통문화전당 2층 공연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에 따르면 합죽마을문화생산지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전주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지난해 전석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일본 근대문화의 고전인 나쓰메 소세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이를 판소리 마당놀이 형식으로 새롭게 각색해 무대에 올린다.

이야기는 호기심 많은 고양이의 시선을 통해 인간 세상을 바라보며, 해학과 감동, 따뜻한 감동을 담아낸다. 특히 배경으로 펼쳐지는 애니메이션 영상은 마치 그림책을 넘기듯 공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출돼, 관객의 시각적 감흥을 한층 높여준다.

연희와 탈춤, 판소리, 그리고 배우들의 유쾌한 연기가 어우러지며 관객은 극 중 고양이와 되어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된다. 아이들은 귀여운 고양이의 눈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마주하고, 어른들은 일상 속 풍경을 고양



이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며 공감과 여운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예매는 네이버, 인터파크, 예스24를 통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5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까지 재단(www.jbct.or.kr)과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tourbiz.jbct.or.kr) 누리집에서 지정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btourbiz@jb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4개의 독립 공간과 4개의 1인 공유오피스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관광 분야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으며, 독립 공간은 창업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인 공유오피스는 창업 연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특히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구성한 컨소시엄 형태로도 독립 공간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7월 경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후 공간에 입주하게 된다.

안중현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장은 “다양한 관광기업이 전북에 자리잡아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캠프’ 2기 참가자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는 오는 16일까지 국내 음악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소리캠프〉에 참여할 2기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리캠프〉는 소리꾼들의 ‘산공부’에서 모티브를 얻어 현대판 ‘산공부’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지난해 첫 시도를 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공연 관람, 전문가 특강, 국내외 아티스트와의 교류 등 현장 중심으로 펼쳐지는 현장 밀착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 음악인들의 시야를 넓히고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흙뿌려진 소리의 기억을 찾아서: 디

아스포라적 접근〉을 주제로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배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예술인들과의 소통 및 네트워킹을 통해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한국음악학과 중심의 음악 관련 전공생 25명을 대상으로 소리축제 기간 내인 8월 14~16일 3일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주 일대에서 펼쳐진다.

참가 신청은 구글폼(https://link24.kr/EzjAHU)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선정자에게는 7월 1일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된다. 타지역 거주자에게는 숙박이 제공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현장 ‘생생리뷰단’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역 예술현장의 감동과 가치를 도민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공유할 ‘생생리뷰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생리뷰단’은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현장을 도민이 직접 체험하고 그 이야기를 글,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도민참여형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오는 9일까지 재단 담당자 이메일(jb7447bj@gmail.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

다. 지원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발된 리뷰단은 6월부터 12월까지 전북 곳곳의 문화예술현장을 관망하며, SNS 기반의 리뷰 콘텐츠 제작 및 게시하고, 활동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를 제출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회당 활동비와 수료증이 제공되며, 활동 종료 후 우수 리뷰단에게는 별도의 상품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그린르네상스’ 참여 예술가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2025 그린르네상스 - 예술가의 질문’에 참여할 예술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예술가가 스스로 던진 질문을 출발점으로, 창작과 연결된 새로운 예술적 실천을 시도하는 과정을 담는다. 이를 통해 예술이 생태적 이슈를 어떻게 감각하고,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적 탐색이 이뤄진다.

모집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전주시를 기반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예술가로 나이, 전공, 예술 분야에 제한은 없다.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예술실험 프로젝트를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18일까지이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예술가에게는 각 30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장은성 기자